

KIA 공격력 '9번 김선빈'에 답 있다

우승 차지한 2017시즌 타율 0.370 타격왕...출루율·장타율 4할 넘어

작년 체력 소모 많은 주전 유격수·발목수술 재활 등으로 성적 하락

KIA가 9번의 힘을 되찾을까?
2018시즌 KIA 타선은 2017시즌과 사뭇 달랐다. 2017시즌은 팀 타율 1위(0.302)와 팀 득점 1위(906점)를 자랑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2018시즌은 그레도 팀 타율 2위(2할9푼5리), 팀 득점 2위(865점)의 공격력을 유지했지만 응집력에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끈한 빅이닝이 즐겼고 승부처에서 결정력도 전년도만 못했다.
응집력은 타선의 연결력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특히 상하위 타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했다. 그 중심에 9번타자 김선빈의 부진이 있었다.
김선빈은 2017시즌 타격왕이었다. 타율 3할7푼을 기록했고 출루율 4할2푼에 장타율도 4할7푼7리였다. 타점도 64점, 득점도 84득점이었다. 득점권 타율은 무려 3할8푼2리였다.
2018시즌은 타율 2할9푼5리, 출루율 3할7푼4리, 장타율 3할7푼5리, 49타점, 73득점으로 떨어졌다. 득점권 타율도 3할4리로 하락했다.



1년 만에 KBO리그의 으뜸 타자에서 평범한 타자로 돌아갔다. 체력 소모가 많은 주전 유격수를 맡은 데다 발목수술 재활로 인해 시즌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
주로 9번타자로 출전하는 김선빈의 성적 하락은 팀 타선에 큰 영향을

을 미쳤다. 김선빈의 9번 타선에서 성적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2017시즌에는 3할7푼3리, 출루율 4할2푼5리, 장타율 4할7푼7리, 타점 64, 득점 84의 높은 수치를 자랑했다.
그러나 2018시즌은 타율 2할9푼5리, 출루율 3할7푼4리, 장타율 3할7푼5리, 타점 49, 득점 73의 성적 하락은 팀 타선에 큰 영향을

9번 김선빈이 높은 타율과 출루율로 상위 타선으로 연결이 되면 KIA는 남다른 폭발력을 과시했다. 이명기, 비나디나, 김주찬과 최형우까지 이어졌고 상대 투수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바로 우승의 원동력이었다.
이런 폭발력이 작년에는 잠잠해졌고 결국 공격의 힘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올해 KIA 타선의 힘도 9번 김선빈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기태 감독도 "김선빈이 2017년처럼 뒤에서 활발한 공격을 해주어야 타선의 힘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여전히 강한 상위 타선을 보유한 만큼 김선빈의 출루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득점력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세해를 맞이한 김선빈의 각오도 남다르다. 타격왕에서 2할대 타자로 추락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으니 명예 회복의 의욕이 강하다. 더욱이 올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얻는다. 상당한 예비 FA 효과도 기대받고 있다. 작년에는 수월 여파와 체중이 불면서 움직임이 둔해진 측면도 있다.
착실한 훈련을 통해 체중 감량을 하고 있다. 누구보다 절실하고 날렵하게 2019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강정호가 30홈런 가능한 유격수? 본인은 3루수가 가장 편하게 생각”

2년 간의 공백을 딛고 빅리그 복귀를 노리는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게 여전히 불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팬들의 질문에 답받지 못한 답하는 코너를 통해 강정호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피츠버그의 어느 팬은 “강정호가 올해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나. 나는 과거에 강정호가 30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라고 봤다. 또 팀 내 최고의 유격수라고 생각했다”고 질문했다.
MLB닷컴의 피츠버그 담당인 애덤 베리 기지는 “강정호가 30홈런을 칠 수 있는 유격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격수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를 3루수로 기용하려 한다. 강정호가 3루수를 가장 편하게 생각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 “강정호는 왼손목 부상 때문에 두 달 동안 공백이 있었고 2년간 빅리그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타격 훈련과 빅리그에서 6번 타석에 들어선 것이 2016년 10월 이후 본 강정호 모습의 전부”라며 “이것으로 그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베리 기지는 “이번 피츠버그



스프링캠프에서 강정호를 지켜볼 가치가 있다. 아직 불음표가 크지만 2015, 2016년 수준의 기량을 되찾은 강정호는 피츠버그 타선의 파워 고민을 지휘할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리 기지는 인터뷰 당시 날카로운 단장의 말로 팬의 불음에 답했다.
현행 단장은 “강정호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수준급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아직 지켜보는 단계지만 강정호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 보여준 적응력을 발휘하면 주전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 “세계 무대에서 영화같은 연기 보여주고 싶다”

언니 임은수·김예림 제치고 종합선수권 우승



쟁쟁한 언니들을 제치고 종합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유영(15·과천중)이 언젠가 세계 무대에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유영은 13일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열린 KB금융코리아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19(제73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여자싱글 1그룹 프리스케이팅에서 130.95점을 획득, 전날 쇼트프로그램(67.68점)과 합계 총 198.63점을 받아 우승했다.
지난달 회장배 랭킹대회에서 임은수에 밀려 2위로 아쉬움을 남겼던 유영은 이번 대회에서는 ‘연아 키즈’ 삼총사로 꼽히는 임은수(16·한강중), 김예림(16·도장중)을 모두 제치고 정상에 섰다.
이번 대회에는 2019 국제빙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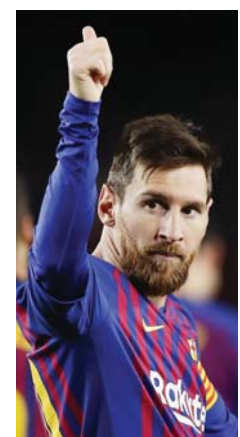
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출전권이 걸려있지만, 유영은 나이 제한 탓에 우승하고도 출전권을 준우승자인 임은수에 내줬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지난해 7월1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다.
비록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지는 못했지만 유영은 임은수, 김예림과의 ‘연아 키즈’ 삼총사 경쟁에서 미소를 지었다. 지난달 회장배 랭킹대회에서 임은수에 밀려 2위에 그친 아쉬움도 씻었다.
비록 세계선수권대회에는 나서지 않지만, 유영도 중요한 대회를 남겨놓고 있다. 내년 2월 9~17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선수권대회와 3월 4~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개최되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다.
유영은 “이번 대회처럼 클린 연

기를 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고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도 아쉬웠다”며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를 비롯해 남은 대회에서는 아쉽지 않은 결과를 내고 싶다. 더 나은 유영으로 뵈고 싶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언젠가 서게 될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것이 유영의 각오다.
유영은 “(김)연아 언니 때문에 피겨를 시작했다. 연아 언니처럼 되는 것이 꿈이고,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은 세계 무대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며 “나의 프로그램에 감동을 받아 피겨를 시작하는 선수가 생겼으면 좋겠다. 마치 연아 언니처럼 말이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메시, 스페인 라리가 최초 400골 달성

435경기만...호날두보다 빨라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최초로 통산 400골 고지에 올랐다.
메시는 14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 누에서 열린 에이바르와의 2018~2019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9라운드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8분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2004~2005시즌 프리메라리가에 데뷔한 메시는 435경기 만에 사상 최초로 개인 통산 400호골을 신고했다. 2005년 5월1일 알바세테와의 경기에서 17세10개월7일의 나이로 데뷔골을 기록했다.
메시의 골 행진은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보다 더 빠르다.
유럽 5대리그(잉글랜드·스페



인·독일·이탈리아·프랑스)를 기준으로 따지면 호날두에 이어 두 번째 400골 달성자다. 그러나 메시는 호날두보다 63경기 먼저 400골 고지에 올랐다.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는 잉글랜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페인(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를 거치며 409골을 기록 중이다.
이번 시즌 메시는 17골로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메시의 골에 힘입어 바르셀로나는 에이바르에 3-0 완승을 거뒀다.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란 구배군은 지리산온천, 창세미륵, 화엄사, 선전굴, 운주루, 피아골, 연복사 등을 지나며 주전-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